

1946년 謄寫本 『國語讀本』의 출현과 교육적 의미

김 준 형(고려대)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국어독본』의 경계와 성격
3. 『국어독본』의 내용
4. 『국어독본』 출현의 의미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1946년 어느 중학교에서 쓰였던 국어과 교재[혹은 부교재]를 발굴·소개하고, 그를 통해 이 자료가 갖는 의미를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둔다. 1945년 해방 직후의 중학교 교재 및 부교재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그것은 해방 후의 이념 갈등과 한국전쟁과 같은 크고 작은 국내 정세에 따른 혼란 속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散佚되었기 때문이다. 실물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교과서의 특징 및 교수학습의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해방 직후 중학교 국어과 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당시 교재 및 부교재가 배제되는 다소 기형적인 방식의 연구가 진행된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중, 해방 후 처음 맞이한 봄인 1946

년 봄에 어느 중학교에서 직접 쓰였던 자료의 일부를 구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이 자료는 國定 교과서가 아니며, 당시 米軍政에서 제정한 교과서도 아니다. 8절지 크기의 갱지에 鐵筆로 謄寫한 油印本으로, 지방에서 국어독본으로 쓰기 위해 임의적으로 만든 교재이거나 부교재일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중앙에 중심을 둔 ‘표준’ 교과서가 아니라, 변방의 자율성이 강조된 ‘특수’ 교과서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자료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을 듯하다. 그렇지만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는 그 의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미군정에서 주도한 교육은 일제의 교육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민족 교육의 정통성을 수립할 기회를 상실케 했다는 비판을 기억한다면,¹⁾ 이 자료는 중앙이 아닌 테서 보여준 국어 교육에 대한 자율적인 움직임의 읽어낼 수 있게 한다. 이는 중앙에서 주도하는 흐름이 아닌 변두리에서 소수의 교원이 느끼고 있던 국어 교육의 의미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점은 이 자료가 갖는 가장 큰 의의가 아닐까 한다. 또한 우선 해방 직후의 교재, 특히 중학교 교재는 거의 발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자료나마 선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그 자료적 가치와 무관하게 의미 있는 일이다. 비록 자료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해방 직후 교육을 이해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두 측면은 이 자료의 출현이 갖는 의의를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 이제 이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그 성격과 의미를 따져보기로 한다.

2. 『국어독본』의 경계와 성격

2.1. 자료의 경계

이 자료는 鐵筆로 쓴 후 謄寫한 것이다. 8절지 크기의 更紙 앞뒤로 등사된 자료가 총 일곱 장, 16절지 크기의 갱지 앞뒤에 등사된 자료가 총 두 장, 8절지 크기의 표지가 한 장으로 되어 있다. 표제는 ‘國語’라고 쓰여 있다. 그렇지만 이는 당대, 혹은 후대에 누군가가 쓴 것이고, ‘일러두기’의 형식처럼 쓴 내

1) 박혜인, 「한국 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한국가정관리학회, 1994.

용 앞에 ‘國語讀本’이 분명하게 油印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이 자료는 ‘국어독본’으로 쓰였던 것이 분명하다.



이 자료가 만들어져서 교재(혹은 부교재)로 활용된 시기는 1946년이다. 그것은 ‘일러두기’처럼 쓴 ‘우리 조선 민족은 단군왕검(檀君王儉)께서 지금으로부터 사천년二백七拾十拾九구 年前에 나라를 새우신 배달겨레이다’라고²⁾ 쓴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단기 4279년은 곧 1946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교과목 중간에 찍어진 ‘우리는 이 좋은 때에 中學校에 入學되었다.’라는 대목을 통해 이 자료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임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학제가 6-6-4제(초등6년, 중등6년(초급중3년, 고급중3년), 대학4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교재는 초급중학교에서 쓰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자료는 1946년에 초급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어독본 교재(혹은 부교재)의 일부인 셈이다. 이 자료가 어디에서 쓰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표지 뒷면에 누군가가 ‘光州郡 河南面’이라는 기록이 쓰여 있는데,³⁾ 이를 통해 보면 아마도 이 자료가 지금의 광주광역시 어느 중학교에서 쓰였던 것으로 짐작해볼 따름이다.

이 책은 현책방에서 우연히 구한 자료인지라, 자료가 뒤죽박죽되어 있다. 따라서 그 순서를 임의로 재배열할 수밖에 없는데, 맨 앞에는 이 자료를 만든 목적과 활용 방법 등을 적어 놓았기에 그 부분이 우선된다. 그렇지만 그 역시 일부분만 남아 있어서 전모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여기에 실린 자료 역시 극히 일부분이다. 따라서 이 자료집의 목차가 어떠한지, 또 어떤 작품이 실렸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남겨진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 필자가 임의적으로 작품의 순서를 배열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틀을 마련할 수 있을 듯하다.

2) 이하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인용문은 모두 『국어독본』이다. 표기는 원문 그대로 쓴다. 원문에 오기가 있더라도, 바르게 고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쓴다.

3) 광주군 하남면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이다. 이곳은 1914년에 광주군 흑석면에서 광주군 하남면으로 바뀌었다.

국어독본

○ <일러두기>⁴⁾

1. 새로운 결심
2. 朝鮮의 이야기
3. 사람의 길

○ 博物館

○ 河馬

○ 禽獸의 教育

○ 조선 학생의 精神 島山

社會는 活動으로부터
한 가지 以上の 專門知識
참 活動은 職分 履行
境遇가 남과 같지 않다

○ 時調 三首

○ 봄

○ 碩學 李退溪

○ 南怡將軍

○ 이순신(李舜臣) 어린

○ 少年時代의 링강은 讀書狂의 農家 傭兒! 그의 健全한 精神은 어머니의 訓育
에서……

○ 2. 形容詞

남은 자료를 토대로 하면, 『국어독본』은 이상처럼 목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를 대상으로 하고 이 자료를 성격별로 분류하면, 크게 다섯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설명적인 글. 둘째, 논설적인 글. 셋째, 문학적인 글. 넷째, 위인의 일화. 다섯째, 기타 등이 그것이다. 설명적인 글은 <博物館>·<河馬>, 논설적인 글은 <禽獸의 教育>·<조선 학생의 精神 島山>, 문학적

4) <일러두기>라는 표기는 이 자료에는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 쓰인 '1. 새로운 결심, 2. 朝鮮의 이야기, 3. 사람의 길'은 사실상 책을 읽기 전에 쓰는 머리말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를 한데 묶는 의미로 편의상 '일러두기'라는 항목을 붙였다.

인 글은 <時調 三首>·<봄>, 위인의 일화는 <碩學 李退溪>·<南怡將軍>·<이순신(李舜臣) 어른>·<少年時代의 링강은 讀書狂의 農家 備兒! 그의 健全한 精神은 어머니의 訓育에서……>, 기타는 <形容 詞> 등이 이에 해당한다.



2.2. 자료의 성격

이 자료는 해방이 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인 1946년 봄에 중학교 교재[혹은 부교재]로 쓰인 것이다. 자료 앞부분에는 ‘새로운 결심’, ‘朝鮮의 이야기’, ‘사람의 길’이 쓰여 있다. 세 항목은 내용이 길지 않으면서도 이 자료의 성격을 집약한 것이므로 전문을 제시한다.⁵⁾

① **새로운 결심** : 해방(解放)된 우리 조국에도 자유로운 앞길이 열렸다. 산에도 들에도 농부(農夫)에도 老年에도 少年에도 學徒에도 自由스런 天地가 전개(展開)되어 意氣 양양이 遠大한 理想(理想)을 뽐내며 앞날을 개척(開拓)할 수 있다. 지나간 三十六年間의 모진 압박과 서러움을 〇리 半萬年 歷史를 거러온 우리 겨〇에 다시금 한 경험(經驗)이 되어 인제야 또 이런 일이 오지 않게 거룩한 노력(勞力)이 있어야 한다.

외적의 죽일 듯한 과혹(過酷)한 압박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 겨레는 장래(將來)의 발전을 爲하여서는 어떠한 고생이라도 〇을 決心이 더욱 커야 쓸 것이다. 배움〇 길에 나선 우리의 學徒들은 얼마 아니〇〇 朝鮮을 등지고 나아갈 무거운 짐과 〇〇〇 가로 놓였다. 지금 朝鮮을 위하〇 〇이고 밤이고 힘쓰고 계신 분들도 다 애초에는 우리와 같은 靑少年이었다는 것이다.

少年의 時期 한번 잃으면 다시 배울 時期는 오지 않는 것이다. 老年이 되어 工夫를 하지 못한 한탄(恨歎)을 하고 그 때야 깨달아 安만 애써 工夫할라 하여도, 그 때는 머리가 들러져 영영(永永) 가업는 생애(生涯)를 만들 뿐이다. 지난 그 서러움을 도라보며, 니를 악 〇〇 새로운 決心과 각오(覺悟)를 더욱 굳〇게 하여 靑少年의 배워야 할 時期를 효〇 있게 리용(利用)함과 同時 앞날의 큰 일군이 되게 오로지 工夫에 힘쓰으로써 책임(責任)을 다할 것이다.

5) 〇 표시는 원문이 뜯겨져 나갔거나, 파손되어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② **朝鮮의 이야기** : 조선의 산과 들과 물은 곱고 아름다우며 맑다. 그럼으로 가르쳐 금수강산(錦繡江山) 三千里라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온순하고 예의가 밝아서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 또는 해동군자(海東君子)의 나라라고 하였다. 북쪽 함경도에는 백두산(白頭山)이 높이 솟아 있고, 중부 조선 江原道에는 세계 제일(世界第一)의 금강산(金剛山)이 있으며, 평안도의 묘향산, 경상도의 지리산, 제주도에는 할나산 등 명산이 있다.

조선의 동쪽과 서쪽 남쪽 삼면은 바다이고, 북쪽만 대륙(大陸)에 연결(連結)되었으므로 반도라고 한다. 또한 북쪽 국경은 두만강과(豆滿江)과 압록강(鴨綠江)이 새이로 흘러 러시아의 만주에 닿고 남쪽은 현해탄, 동쪽은 日本海, 서쪽은 황해가 있다. 산에는 석탄(石炭)과 금 같은 광물이 많이 나며 바다에는 명태 정어리 ○이 같은 것이 많이 난다. 그뿐만 아니라 쌀 보리 콩 옥수수 같은 농산물(農產物)과 양잠업(養蠶業)도 성왕하다. 우리 조선 민족은 단군왕검(檀君王儉)께서 지금으로부터 사천년二백七十七九年전에 나라를 세우신 배달겨레이다. 우리 三千里 강토는 단군조선 기자(箕子)조선 위만조선을 거쳐 진한(辰韓) 마한(馬韓) 변한(弁韓)시대를 지니고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의 三國時代와 高麗時代 李朝朝鮮時代를 거쳐왔다. 檀君朝鮮은 王儉께서 箕子朝鮮은 箕子께서 위만朝鮮은 衛滿께서 高句麗는 東明聖王께서 百濟는 高溫祚 新羅는 朴赫居世, 昔脫解, 金智 새 분이 세워왔었고 高麗는 高珠蒙 李朝는 李成桂께서 각각 세웠었다.

③ **사람의 길** : 사람이 사회(社會)에 나서 죽임에 일할 때까지 일정(一定)한 목적을 세운 사명(使命)이 없어서는 안이 된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 있는 聖賢(성현)들 孔子(공자) 孟子(맹자) 나과룬, 막스 朝鮮에는 한글을 만드신 世宗大王, 李栗谷 先生 등 다 그 사명을 다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한번 세상(世上)에 난 以上은 무엇이든지 社會를 爲하여 남겨놓고 가지 않으면 안이 될 것으로 맞는다. 社會의 진보 발달을 피하는 同時에 우리 生活(생활)에 幸福과 利益을 많이 줄 만한 공헌(貢獻)을 하여야 쓴○는 것이다. 社會엔 文明文化의 발전(發展) (이하 낙장)

『국어독본』은 고려의 시조를 高朱蒙으로 보는 등 일정한 오류가 없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해방 후 청소년의 자세를 잘 그리고 있다.

‘새로운 결심’에서는 일제 36년간의 압박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로운 나라에 살게 된 우리 청소년들은 나라를 위한 큰 일꾼이 되기 위해 각오를 다잡아

학업에 힘쓸 것을 결심하도록 유도한다. 교육의 목적이 국가의 良才 양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朝鮮의 이야기’는 錦繡江山·東方禮義之國·海東君子의 나라인 우리나라의 지리·產物·역사를 개괄적으로 썼다. 중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케 한다. ‘사람의 길’은 뒷부분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 대개는 사회를 위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즉 이 자료는,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나라에 사는 청소년들은 직분을 다해 학업에 매진하고, 그 학업을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 쓸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 자료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국어독본』에는 다양한 장르의 글이 실렸다. 그 글들은 당시 중학생들에게 특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 글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목적이 더 강했다. 실증적이며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실용적이며 추상적인 관념을 제시함으로써 중학생들 나름대로 자신의 성찰과 판단력을 증점적으로 따지기 위한 목적인 셈이다. 이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입증하려는 실증주의적인 방법론보다 조국의 미래를 위한 청소년의 역할을 강조한 실용주의적인 방법론이 시급했던 까닭이라 할 만하다.

그러면서도 『국어독본』에는 ‘배타적인 애국’에 대한 메시지가 그리 강하지 않다. 해방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만큼 식민지 시대에 대한 증오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결심’이라는 것이 고작 “지나간 三十六年間の 모진 앞박과 서러움을 ○리 半萬年 歴史를 거러온 우리 겨○에 다시금 한 경험(經驗)이 되어 인제야 또 이런 일이 오지 않게 거룩한 노력(勞力)이 있어야 한다. 외적의 죽일 듯한 과혹(過酷)한 앞박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 겨레는 장래(將來)의 발전을 爲하여서는 어떠한 고생이라도 ○을 決心이 더욱 커야 쓸 것이다.” 정도에 그친다. 그리고 사람은 사회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일반 대중을 위해 쓰인 다음의 책의 서문과 비교해볼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倭놈은 우리의 원수니 미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倭놈의 앞재비 玄永變이라는 者는 “朝鮮 사람의 살 길은 日本 사람이 되는 以外는 없다.”고 외쳤지만 實로 朝鮮 사람의 살 길은 倭놈을 미워하는 以外에는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朝鮮에는 健忘症이 걸린 平和主義者가 意外로 많아서 解放된 지 不過

三年에 벌서 三十六年間 植民地 百姓으로서의 奴隸生活를 잊어버리고 倭놈과 倭놈의 앞재비에 對하여 寬大하기를 公公然하게 主張하고 있다. (중략) 오늘날 우리는 倭놈에 對하여 이러한 불 같은 敵愾心을 가져야 할 것이다. 원수를 미워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同胞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다. 원수에게 寬大하거나 寬大하기를 主張하는 사람은 千萬以外로 도리어 同胞에게 殘忍하거나 殘忍하기를 主張하는 사람이다. 倭놈을 미워하라! 그리하여 同胞를 사랑하라!⁶⁾

물론 대중서를 표방한 책의 서문과 중학교 교재[혹은 부교재]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후자에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아낸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겠다. 지방의 자율성을 고려한 ‘특수’ 교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교과를 담당 한 집단이나 개인의 성향이 개입된 결과라고도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방 직후의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교재의 내용은 과거에 대해 조금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이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건장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겠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할 때, 이 교재는 적어도 세 가지 입장에 충실한 교육 목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함. 둘째,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시킴. 셋째, 현실적인 사회 참여를 드러냄 등이 그것이다.

3. 『국어독본』의 내용

서두에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자료의 성격을 말했다면, 이하는 실제 『국어독본』에 실린 내용을 간략히 살피고, 그 글을 통해 학생들에게 말하고자 한 메시지를 읽어내 보자.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국어독본』에 실린 내용은 크게 다섯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설명적인 글. 둘째, 논설적인 글. 셋째, 문학적인 글. 넷째, 위인의 일화. 다섯째, 기타 등이 그것이다. 이들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설명적인 글은 <博物館>과 <河馬>를 들 수 있다. <박물관>은 박물관의 개념에 대해 말한 다음, 景福宮과 昌慶苑 안에 있는 유물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뒷부분이 찢어져 나가 그 온전한 내용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

6) 이명선, 『교정·번역 임진록』, 국제문화관, 1948.(김준형 편, 『이명선전집』 4, 보고서, 2007.)

에 쓰인 내용만으로도 당시 유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도록 글을 구성한다. 예컨대 “景福宮 内の 博物館은 大本館 及 勤政殿 思政殿 修政殿 等 建物을 利用하여 組成하고, 塔碑의 種類는 本館 後庭에 配列하니라” 라고 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히 적은 것도 그러하다. 경복궁 내에 박물관을 두고 개관을 한 날은 1945년 12월 3일이었으니,⁷⁾ 이 자료에는 상당히 일찍 박물관을 소개한 셈이다. 박물관은 민족의 문화를 대변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담기 위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음직도 하다. 비록 개괄적인 소개지만, 중학생에게 박물관에 대한 개념과 대략적인 구조를 익히게 했음을 알 수 있다.

<하마>는 하마의 생태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하마의 외모, 가족, 사회, 주거, 싸움 등을 언급하고, 창경원에 있는 하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썼다.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의 방법을 가르치고,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하마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사회생활에 초점을 둔 것은 하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동물들의 사회생활을 통해 인간들의 면모를 반추해 보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논설적인 글은 <禽獸의 敎育>과 <조선 학생의 精神 島山>을 들 수 있다. 이 장르는 중학생에게 강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다른 어떤 장르의 글에 비해 그 메시지가 강하고 직설적이다. <금수의 敎育>에는 어미 새가 새끼 새에게 나는 법을 敎育하는 행위, 고양이나 호랑이가 새끼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는 법 등이 쓰여 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합하여 “此等 動物은 오즉 새끼를 낳아서 保護할 뿐 아니라, 더욱 이것을 敎導하여 筋肉과 腦力을 發達시킨 然後에 비로소 放任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敎育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금수조차 敎育을 시켜 새끼를 내보는데, 사람들 역시 사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敎育을 통해야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조선 학생의 정신 島山>은 1926년 겨울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쓴 글인 듯한데, 그 내용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누고 있다. ①社會는 活動으로부터 ②참 活動은 職分 履行 ③境遇가 남과 같지 않다 ④한 가지 以上の 專門知識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일부분씩만 남아 있어서 그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는

7)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국립중앙박물관, 2005.

없다. 또한 이 중 ②·③은 다른 종이에 등사되었고, 별도로 첨부된 것이어서 실제 도산이 쓴 글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성격이 일관되고, 부분적인 내용만으로도 그 주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①에서 학생은 이후 조선 사회, 더 나아가 세계 사회에서 활동할 사람이기에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②에서 학생은 조선의 경우에 맞춰 자신의 직분을 이행해야 함을, ③에서는 우리의 찬란한 문화는 파괴되고 이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한 학생들은 허영과 유혹에 휘둘리지 않기를, ④에서는 학생들은 한 가지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구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과거를 보기 위한 허영적인 학문이 아닌 사회에 유익한 실질적인 학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도산의 글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제시하고 있다.

문학적인 글은 <時調 三首>와 <봄>을 들 수 있다. <시조 3수>는 말 그대로 세 편의 시조를 소개하고 있다. 시조는 ① ‘泰山이 높다하되 하늘 아랫 뵈이로다 / 오르고 또오르면 못오를 理 없게건만 /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뵈만 높다 하더라’, ② ‘말없는 靑山이 態없는 流水로다 / 값없는 淸風이오 임자없는 明月이라 / 이 中에 病없는 이 몸이 分別없이 늙으리라’, ③ ‘나하기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고 / 남이 한다 하고 義 아녀든 좃지 말라 / 우리는 天性을 직혀서 생김대로 하리라.’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 세 편의 시조에 대해 각각 작가를 써 넣었다. ①은 李珣, ②는 咸渾, ③은 卞季良으로 썼는데, 이들 시조의 작가가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여기에서 문제 삼을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의 시조를 선택했다는 점이고, 그 내용이 모두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이라는 점이다. 시조 작품이 지닌 문예미보다는 효율성에 보다 무게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봄>은 봄이 왔기에 모든 生物이 저마다 즐거워한다고 한 후, 이어서 이처럼 즐거운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화두를 바꾼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좋은 때에 中學校에 入學되었다. 배우는 것○ 못아 새것이고 높은 것이어서 趣味가 깊고, 따라서 부지럼도 自然히 생긴다. 우리들은 맛당히 첫 번 먹은 마음을 언제까지든지 놓지 말고, 學業의 向上을 圖謀해야 될 것이다. 그러고, 우리 동무들끼리는 서로 親密하게 지내며, 서로 有益한 學友가 되어 工夫도 서로 勸勉하며, 나쁜 點도 서로 일러주면서 지내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뒤에 學校를 좋은 成績으로 卒業하고 社會에 나선 때에도 또 같이 손목을 잡고 나라를 爲하여 일하여야 될 것이다.” 계절이 시작을 알리는 봄은 곧 학생 시절이고, 그런 시절에는 부지런히 학업에 힘써 사회에 나아가야 하며, 사회에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예적인 글이면서도 중국에는 교술적인 내용으로 글을 맺고 있다. 시조든 수필이든 간에 순수한 문예적인 글보다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담은 글을 중심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인의 일화로는 <碩學 李退溪>·<南怡將軍>·<이순신(李舜臣) 어른>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인물과 <少年時代의 링강은 讀書狂의 農家 備兒! 그의 健全한 精神은 어머니의 訓育에서……> 등 미 대통령 링컨과 같은 인물을 제시하였다. <석학 이퇴계>는 李滉의 일화지만 뒷부분이 빠져 있다. 남은 부분은 퇴계가 어렸을 때의 溫恭仁慈하고 謹厚篤實한 일화를 제시한 후, 이후는 학문에 매진하였던 일화를 차례로 나열하였다. 퇴계의 일화에서 가장 중시한 대목은 퇴계가 어렸을 때에 학업에 열중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 교재[혹은 부교재]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학업에 힘쓰라는 면모를 보여주기 위함이라 하겠다.

<남이 장군>은 당시 널리 향유되던 일화를 제시하였다. 이 일화는 남이 장군이 귀신에 썩인 權擘의 딸을 구해 그의 사위가 되었다는 『紀聞叢話』나 『東廂記纂』 등에 실린 일화에다가 그 후의 이야기를 첨가한 것이다. 즉 남이가 李施愛의 亂을 평정한 후 ‘白頭山石磨刀盡, 豆滿江水飲馬無, 男兒二十未平國, 後世誰稱大丈夫’라는 시를 지었다는 것과 柳子光의 무함에 결국 죽게 된 일화를 제시하였다. 한 편의 야담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다른 이야기들과 달리 뚜렷한 교훈성과 목적성을 읽어낼 수 없는 작품이다. 굳이 짚어낸다면 대장부로서의 기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이순신 어른>은 “李舜臣이라 하면 조선 사람 되어서 모를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勇猛이라든지 그 勳功이라든지 우리 少年들의 가장 공경하며 참으로 模範할 일이 많은 어른입니다.”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이순신의 일화를 제시한 것이다. 이순신은 어렸을 때에 붓대를 내던지고 무예를 익혔는데, 무과 시험에서 다리가 부러졌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과거에 합격한 일화 등 그의 끈기와 애국심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세상에 손

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만 들어도 꿈꿨으며 곧 죽을 것 같이 하는 겁쟁이는 이 어른의 일을 한번 생각지 않는가?”는 말이나, “애국심이 열렬하여 몸을 나라에 바치기로 결심”한 것처럼 학생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목적으로 이 자료를 제시했음은 분명하다.

이황·남이·이순신은 우리나라의 역사 인물들 중에서 학생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위인을 뽑아 제시한 것이라면, <少年時代의 링강은 讀書狂의 農家 傭兒! 그의 健全한 精神은 어머니의 訓育에서……>는 미국 대통령 링컨의 일화다. 뒷부분이 떨어져나가서 전모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골자는 농촌에서 머슴을 살던 링컨이 불행한 생활을 극복하고 미국이 사랑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가르침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링컨에게 직접 이야기했다고 한 대목은 이 일화에서 비교적 장황하게 쓰고 있는데, 이것이 학생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 즉 “사람의 價値는 그 心志에 있다. 아무리 富貴할지라도, 그 心志가 不正하면 餘望이 없는 것이다. 사람은 무엇보담 心志를 正直히 하여가지고 每日 職務를 熱誠으로 하여 나가면 將來의 偉大한 人物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떠한 困難을 當할지라도 그것을 忍耐하지 못하고, 근심하거나 悲觀하는 者는 健全한 精神을 가진 者가 아니다. — 링강의 어머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千町步의 土地를 所有하는 것보담도 健全한 精神을 所有한 거를 기뻐한다.”는 내용이 곧 학생들에게 말하고자 한 주제인 셈이다. 이후 링컨은 그에 맞춰 학업에 힘써서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를 해방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기타로는 문법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서는 <형용사>를 언급했는데, 그 목차가 ‘二’로 되어 있다. 형용사 외에 다른 품사에 대한 설명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형용사로는 “規則形容詞와 不規則形容詞로 大別할 수도 있다.”고 한 뒤, 규칙형용사만 언급하고 이하는 낙장이다. 문법이 국어 ‘독본’에 실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모호하지만, 그를 벗어나 학생들에게 문법도 가르쳤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교재[혹은 부교재]에는 설명적인 글, 논설적인 글, 문학적인 글, 위인의 일화, 기타 등이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린 글은 장르를 불문하고 그 지향점이 교훈적인 데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토대로 사회와 나라에 유용하게 쓰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이 교재[혹은 부교재]가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대의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4. 『국어독본』 출현의 의미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후, 국어는 국가의 주체성 및 자주성과 직결되었다. 해방 직후 조선교육심의회에서 教授要目 제정에 참여한 구성원 절반이 국어국문학자였다는⁸⁾ 점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국어에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국어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도 비교적 일찍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국어 교과서[한글첫걸음, 국어교본(상)]가 배포된 때는 1945년 10월 20일이다.⁹⁾ 물론 이 교과서는 미 군정청에서 발행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교과서는 이보다 후대에 배부된 듯한데, 그 양상은 1946년 5월 25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八·一五 이후 급속도로 치열하여가는 교육열에 비하여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 난으로 머리를 알코 있는데 이를 타개하고자 경기도 학무과에서는 임시교재연구회(臨時教材研究會)를 조직하고 지난 四月 중순부터 약 삼백만원 예산으로 교과서를 인쇄하여 오든 중 이것이 완성되어 지난 十일부터 동 二十二일까지에 도내 각 국민학교에 三十만 권을 배부하였다.

이번 배부된 교과서는 초등학교 이동이 배우는 과목 전부인데 즉 지리부도 리과 산수 체조요목 도화 공작 가사재봉요목 등 十과목으로 저번 군정청으로부터 배부한 공민과 국어 교과서를 합치면 이로써 초등 교육 일반의 교과서가 완비된 셈이다.¹⁰⁾

이로써 본다면 국어과 과목을 우선 배부하고, 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는 나중에 배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해방 이후 국어 과목에 얼마

8) 김혜정, 「해방직후, 국어에 대한 인식 및 교과 형성 과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8, 2003.

9) 한글학회 50돌 기념 사업회,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1972. 292~293쪽.

10) 1946년 5월 25일 『동아일보』. <教科書 十種 各校에 配付>.

큰 비중을 두었는가를 방증하는 한 예라 하겠다. 물론 국어 교과서 역시 정확하게 언제 각 학교에 배부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해방 후 처음으로 맞이한 1946년 봄 학기에는 미 군정청에서 만든 교과서를 가지고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국어과 교육 과정은 전 시대와 다른 면모를 분명히 드러낸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그 내용이 설정한 교육 목표에 위계질서가 없는 점,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강한 점 등도 나타났다.¹¹⁾ 이는 물론 당시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지침이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과서와 교사가 부족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부교재를 활용하기도 했다. 『국어독본』 역시 이러한 도정에서 만들어진 별도의 교재인 셈이다.

미군정 문교부에서 발행한 교수요목집에는 ① 교수요지, ② 교수 방침, ③ 교수 사항, ④ 교수의 주의 등이 실려 있다.¹²⁾ 이는 당시 표준성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이 중 ‘教授要旨’은 말 그대로 국어과 교육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를 『국어독본』과 대비해 보면 그 특성이 두드러질 듯도 하다.

우선 미군정 문교부 발행 교수 요지는 ‘국어를 잘 알고 잘 쓰게 하며, 우리의 문화를 이어 확충 창조하게 하고, 知德을 열어 건전한 국민정신을 기르도록 요지를 삼음’이라고 밝혔다. 즉 세 가지로 교수의 요지를 밝힌 것이다. ‘국어를 잘 읽고 쓰게 한다’는 점은 생활에 기반한 것으로, 국어 교육과 생활을 밀접하게 연결시켰다. ‘우리의 문화를 이어 확충 창조하게 한다’는 것은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지덕을 열어 건전한 국민정신을 기른다’는 것은 다소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주성에 기초한 교양인으로 기른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국어독본』에는 쓰기가 빠져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부분은 기본적으로 미군정 문교부에서 말한 교수요지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위인의 일화를 제시한 것이라든가 <박물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 전통 문화의 계승과

11) 김혜정, 앞의 글, 2003. 150~156쪽.

12) 이에 대해서는 엄진웅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과 그 특성에 대하여 - 해방후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한국국어교육연구논문집』 12,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76)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이 글 역시 관련 자료는 이 글을 참조하였다.

발전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사회적인 책무를 제시한 것이라든가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 다양한 글들은 자주성에 기초한 교양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임에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국어독본』은 몇 가지 점에서 독자성을 갖고 있다. 이 점은 『국어독본』이 갖는 의의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교육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설명적인 글이든, 논설적인 글이든, 문학적이든 글이든 간에 『국어독본』에서는 학생은 교육에 충실하여 사회와 나라에 필요한 인물이 될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 거의 모든 작품에 들어가 있다. <일러두기>와 같은 대목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설명적인 글로 <박물관>, 논설적인 글로 <禽獸의 教育>과 <조선 학생의 精神 島山>, 문학적인 글로 <시조>와 <봄>, 위인의 일화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막론하고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는 교재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예라 하겠다. 어떠한 글이든 간에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 것은 작품 그 자체가 아닌 작품을 통한 ‘대사회적’ 메시지를 강조함이다. 즉 국어과 과목을 통해 교육의 대사회적 측면을 돋보이게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어독본』은 다양한 종류의 장르를 수록하였다는 점이다. 이 자료에는 설명문, 논설문, 문학, 야담, 일화, 문법 등 다양한 장르가 수록되어 있다. 물론 이 자료가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외에 다른 글들도 실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 교과서와 대비해볼 때에도 그 양상이 비슷하다. 즉 당시에 다양한 종류의 글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 과목의 다양한 장르 인식을 유도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당시 현장 교육의 측면을 이해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중앙에서 제시한 교재 외에 다양한 교재를 만들어 사용했음을 직접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해방이 되면서 교재와 교사의 부족은 가장 큰 문제였다. 하지만 그저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에, 각 학교에서는 자신들만의 교재를 만들어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자료가 그러한 양상을 입증한다. 특히 이 자료는 1946년 봄 학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 만들어진 중학교 교과서로는 미 군정청에서 제작한 『한글첫걸음』이 유일하다. 『중등국어교본』이 발행된 연도는 1946년 9월이니, 이 자료는 당시 교과서가 배포되기 이전의 중학교 교재 및 교육

을 이해하는 데에 일정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5. 맺는 말

이 글은 아직까지 소개된 적이 없는 몇 장의 등사본을 보여주기 위한 데에 목적을 두었다. 그 자료는 해방 후 처음으로 맞이한 봄에 등사된 중학교 교재 [혹은 부교재]인 『국어독본』인데, 당시 중학교 교재를 이해하는 데에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국어독본』은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어느 중학교에서 교재, 혹은 부교재로 썼던 자료 중 일부를 모은 것이다. 여기에는 설명적인 글, 논설적인 글, 문학적인 글, 위인의 일화, 문법이 실려 있다. 설명적인 글로는 하마의 생태를 그린 <하마>와 박물과에 대해 소개한 <박물관>이, 논설적인 글로는 금수가 새끼를 교육하는 방법을 담은 <금수의 교육>과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학생들에게 제시한 <조선 학생의 정신>이, 문학적인 글로는 이이(양사언?) 성혼 변계량의 시조와 봄을 이야기한 <봄>이라는 수필이, 우리나라 위인의 일화로는 <석학 이퇴계>와 <남이 장군>과 <이순신 어른>이, 외국의 위인으로는 <少年時代의 링강은 讀書狂의 農家 傭兒! 그의 健全한 精神은 어머니의 訓育에서……>이 실렸다. 그리고 기타로는 문법을 이야기한 <형용사>가 실렸다.

책 앞부분에는 ‘일러두기’ 형식인 세 편의 글이 실렸다. ‘새로운 결심’, ‘朝鮮의 이야기’, ‘사람의 길’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교재는 적어도 첫째,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함. 둘째,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시킴. 셋째, 현실적인 사회 참여를 드러냄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국어독본』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그 하나는 교육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즉 이 교재는 작품을 통해 대사회적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 교재에는 다양한 장르의 글이 수록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종류의 글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 과목의 다양한 장르 인식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중앙에서 제시한 교재 외에 다양한 교재를 만들어 사용했음을 실증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이 자료는 당시 교과서가 배포되기 이전의 중학교 교재 및 교육을 이해하는 데에 일정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몇 장의 자료를 소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이 자료와 변별되는 당대 자료들과의 대비 및 기존 교육과정에서 텍스트에 대한 접근 방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國語讀本』, 謄寫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국립중앙박물관, 2005.

김혜정, 「해방 직후, 국어에 대한 인식 및 교과 형성 과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8, 2003.

박혜인, 「한국 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역사적 고찰 - 과거시험이 가족 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한국가정관리학회, 1994.

이관규, 「한국의 국어정책과 국어교육, 그리고 국어운동」, 『국어교육』 117, 한국어교육학회, 2005.

이명선, 김준형 편, 『이명선전집』 4, 보고서, 2007.

엄진웅,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과 그 특성에 대하여 - 해방후부터 제3차 교육과정까지」,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 12,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76.

한글학회 50돌 기념 사업회,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1972.

【국문초록】

이 글은 1946년에 어느 중학교에서 교재[혹은 부교재]로 썼던 자료 중 일부를 모은 『국어독본』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데에 목적을 둔다. 현재까지 확인한 『국어독본』에 실린 글은 설명적인 글 두 편(<하마>, <박물관>), 논설적인 글 두 편(<禽獸의 교육>, <조선 학생의 정신- 島山>), 문학적인 글 두 편(<시조 三首>, <봄>), 위인의 일화(<석학 이퇴계>, <남이 장군>, <이순신 어른>, <링컨>), 기타(<형용사>) 등이 그것이다.

자료 앞부분에는 ‘일러두기’ 형식으로 ‘새로운 결심’, ‘朝鮮의 이야기’, ‘사람의 길’이 실렸다. 이 세 편을 보면, 이 교재는 적어도 첫째,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함. 둘째,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시킴. 셋째, 현실적인 사회 참여를 드러냄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교육학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대사회적 메시지를 강조한 교육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 둘째, 다양한 종류의 글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 과목의 다양한 장르 인식을 유도했다는 점. 셋째, 이 자료는 중앙에서 제시한 교재 외에 다양한 교재가 있었고, 그 교재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 등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이 자료는 당시 교과서가 배포되기 이전의 중학교 교재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핵심어 : 해방 후 교과서, 『국어독본』, 국어, 등사본, 주체성.

【Abstracts】

The of Lighting-on of mimeographed version
Gok-eo-Dok-Bon(Korean reader) written in 1946
and its' meaning

Kim, Joon-hyeung

This study purposes to introduce 『Gok-eo-Dok-Bon(Korean reader)』, which collected some parts of the text-book used for middle schedule in 1946, and to research significance. Based on today's research result, 『Gok-eo-Dok-Bon(Korean reader)』contents two of explanatory literatures as (<Hama[Hippo]>, <Bakmulgan[Museum]>), two of editorial literatures as (<Birds and beasts education>, <Korean students spirit>), two of literary literatures as (<Sijo three piece>, <Spring>), and some of biographical literatures as (<A great scholar LeeHwang>, <NamYi general>, <A saint LeeSunSin>, <Lincoln>), the others(<Adjective>).

Based on these 3 literatures, at least, 『Gok-eo-Dok-Bon(Korean reader)』 purposes to show the educational goal by ; first, it intends to future instead of the past; second, it recognizes our identity; third, it indicates th realistic social participation.

This research material has 3 major educational significance. Frist, it attaches importance to the educational worth by the emphasis of social message. Second, it leads the well recognition of various genres of Korean

literatures by presenting various literatures. Third, This research material has various different texts except the presented texts by central office. Moreover the education composed of the texts that is positively verified. Specially it is worthy of notice that the research material is the middle schedule text book before distribution of official text-book.

keywords : a textbook, *Gok-eo-Dok-Bon*(*Korean reader*, a Korean language schoolbook, mimeographed version, national identity

이 논문은 2009년 7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8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